

여호수아(10) 한 제단을 쌓았으니

■ 본문

수 8:30-35

■ 시작 찬송가

254장(통 186장)

■ 헌금 찬송가

435장(통 492장)

뿌리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승리 이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합니다. 갱신의 핵심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급진적인 변화가 됩니다. 이 갱신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과 힘입니다. 성경과 믿음에 뿌리를 두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의 단창을 들고 기도할 때 아이성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가 끝난 이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에발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승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승리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하지만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1)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 생활 속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가 끝난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에발 산으로 나아갑니다.

수 8:30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첫 패배 이후 회개하였고, 죄를 지었던 아간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어떠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알게 하실 때,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 55:6-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2)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이성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굳이 바로 가지 않고 다른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들려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 27:4-7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 같지만, 그들은 저주의 산인 에벨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들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에발산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의 수많은 싸움을 이겨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3) 갱신의 도구 : 예배와 말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사드릴 때 그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갱신의 중심이 됩니다.

수 8:31 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수 8: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갱신은 항상 율법을 낭독하는 것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느 8:5-6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언약이 갱신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배드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거류민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음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열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수 8:35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모세의 말을 기억하여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항상 영적인 갱신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 물결, 문화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저주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나쁜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2018.09.23. 주일찬양예배 중)